

기획보고서 06-008

對 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kotra 해외조사팀

목 차

I. 인도, 실체화된 거대시장인가?	1
II. 무엇이 외국인직접투자를 가로막나?	4
III. 왜 인도인가?	8
IV. 인도 투자 진출 10계명	11

요 약

- 인도는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절대 금액이나 성장률 면에서 기대보다 부진함.
- 여타 BRICs 국가대비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부진은 누적된 재정적자, 부족한 사회간접자본과 취약한 투자 환경, 취약한 산업구조,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과 규제 등의 장애요인들에 기인함.
- 이러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아웃소싱 및 R&D 허브화 가능성, 내수시장의 성장,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제3국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으로 인도는 중요한 FDI 종착지로 부상하고 있음.
- 중요한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인도 투자 진출 10계명’은 다음과 같음.
 - 1) 인도는 제2의 중국이 아니다.
 - 2) 시장 규모를 과대평가 하지 말라.
 - 3)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을 숙지하라.
 - 4)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가 유리하다.
 - 5) 유능한 현지인을 활용, 규제와 인(人)의 장벽을 넘어라.
 - 6) 성급해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 7) 협의는 의사결정자와,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 8) 법제도 변화에 촉각을 세워라.
 - 9) 지역별 · 거점별로 공략하라.
 - 10) 거래선 ·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라.

I. 인도, 실체화된 거대시장인가?

□ BRICs, CHINDIA로 전세계 시선 집중

- 2003년 골드만삭스의 BRICs 보고서¹⁾ 발간 이후 BRICs 시장, 특히 중국과 인도는 CHINDIA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차세대 시장으로 급부상함.
- 그러나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제조업체들의 아웃소싱기지화 된 중국의 경우와 달리 인도는 아직 시장 개척이 미진한 상황임.

□ 급속한 경제 성장과 중산층 형성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 2003년부터 최근 3년 연속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70~'80년대의 'хин두성장' 및 '90년대 이후의 미진한 경제성장세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인도의 GDP는 '04년과 '05년 각각 세계 12위, 14위 규모를 달성함.
- GDP(구매력평가 기준)가 전 세계에서 4번째 규모로, 경제성장과 함께 실질 구매력이 상승함. 이와 함께 중산층이 증가, 이동전화 및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급증함.

< 구매력평가기준 GDP >

(단위: US\$)

	'00	'01	'02	'03	'04	'05	'06(f)
1인당 GDP	2,446	2,557	2,682	2,878	3,080	3,316	3,547
GDP(십억)	2,437	2,594	2,769	3,023	3,291	3,603	3,919

주: f는 예측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99, Oct. 2003

□ 기대보다 부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 실질적인 거대시장으로 성장했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 다음의 신 시장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나, 여타 BRICs 국가에 비하여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급격한 성장은 보이지 않음.

- 대 인도 직접투자유입액은 '04년 기준 US\$ 4백만으로 중국 US\$ 6백만, 러시아 US\$ 1천2백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 측면에서도 러시아 324.7%, 중국 29.3%에 비해 낮은 2.9%를 기록함.

< 연도별 대 BRICs 직접투자 유입액 현황 >

(단위: US\$ 백만, %)

	'01	'02	'03	'04	증가율
러시아	2,748	3,461	7,958	11,672	324.7
중국	46,878	52,743	53,505	60,630	29.3
인도	3,813	4,135	2,640	3,924	2.9

주: 증가율은 '01년 대비 수치

자료: WIR 2005, UNCTAD, SIA Newsletter, Jan. 2005, Oct. 2005

○ 대 인도 주요 투자국은 모리셔스(조세회피처; Tax Haven),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순서임.

< 국별 대인도 직접 투자 현황 >

(단위: US\$ 백만)

	'91.8~'99.12	'00	'01	'02	'03	'04	'05.9	총계
모리셔스(1)	2,833	811	1,705	1,656	588	1,049	1,095	9,737
미국(2)	1,899	409	376	309	433	677	415	4,517
네덜란드(3)	494	124	234	170	264	518	86	1,890
일본(4)	675	224	227	450	99	121	102	1,897
영국(5)	506	64	292	386	196	150	213	1,807
한국(9)	476	17	5	41	26	28	15	607
FDI 총계	13,109	2,808	3,813	4,135	2,640	3,924	2,831	33,261

주: ()안은 총계기준 순위

자료: SIA Newsletter, Jan. 2005, Oct. 2005

II. 무엇이 외국인직접투자를 가로막나?

□ 여타 BRICs 국가대비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은 누적된 재정적자, 부족한 사회간접자본과 취약한 투자환경, 취약한 산업구조 및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과 규제 등에 기인함.

- 이중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열악한 도로여건, 불안정한 전력 공급 상황)과 인도코스트(정책 집행의 비효율성 및 규제)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함.

□ 부족한 사회간접자본과 취약한 투자환경

- 열악한 도로여건

- 인도 전체 고속도로의 길이는 2,000km로 중국(30,000km)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함. 이로 인해 간선도로(65,000km)가 전체 물류의 대부분인 45%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간선도로 또한 4차선은 9%에 불과하고, 2차선과 1차선이 각각 56%, 35%를 차지하는 등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이러한 열악한 도로여건은 운송 소요시간을 증가시켜 생산요소의 적시투입을 어렵게 하고 물류비용을 증가시킴.

- 실제로 뉴델리-뭄바이 간 육운 비용이 서울-뉴델리 간 수송비용보다 높으며, 이러한 높은 육상운송비용은 제3국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인도의 매력도를 저하시킴.

- 불안정한 전력공급

- '03/'04년 시간당 전력 생산량은 633kw로, 총 수요측면에서는 평균 6%, 피크타임시 12% 이상 부족1)함.

- 1인당 전력소비량은 우리나라의 1/9수준인 582kwh에 불과하나 이는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사용 증가 및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 증가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전력부족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육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10차 경제개발계획(2002-07)이 시행되었으나, 계획 대비 27,000mw의 전력이 부족한 상태로 시행되어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만한 목표 달성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까지 10만 kw전력 증산계획을 추진 중이나, 막대한 재정적자가 인도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과 규제: 인도 코스트(Indian Cost)

○ 정책 리스크

- 개혁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기업의 의사결정시 정책 리스크를 증가시켜 투자를 어렵게 함.
- 현 정권²⁾은 '05년 8월, 이전 정권부터 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던 Maruti 자동차회사 및 국영전기회사인 BHEL을 포함한 13개 공기업 매각 계획을 전면 취소함.

1) 전력부족률 = (전력수요량-전력공급량)/전력수요량 X 100(%)

2) 2004년 5월 13일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의회당 연정인 통합진보연합(UPA)이 집권당인 BJP가 이끄는 국민민주연합(NDA)을 누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함. UPA에는 공산당이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어,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 정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음.

- '04년 말부터 예고했던 소매업부문에 대한 FDI 허용 방침도 '허용 불가'로 입장을 변경하며 연기하다가, '06년 1월말에서야 단일 브랜드 사업부문에 한해서 51%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시장 개방도 지연됨.

○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영세기업 보호제도

- 100인 이상의 고용주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등 대기업의 노동자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여 다국적 기업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를 저해함.
- 경제특구 설치확대 및 우대조치 강화를 위한 법안 'Special Economic Zones Bill 2005'이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문구를 삭제시킨 상태로 통과되어 동 법안의 취지가 많이 훼손됨과 동시에 경제특구 활성화를 저해함.
- 1천여 개의 품목을 소기업산업(Small Scale Industry)으로 지정, 외국기업의 지분한도를 24%로 제한하는 등의 영세기업 보호제도는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함.

○ 사업 착수, 등기, 계약이행, 청산 등 전 영역에 걸쳐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

○ 임의적이고 복잡한 세제(Tax Regime)

- 조세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세무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임의적인 과세 행위와 빈번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

□ 재정적자 누적

- 인도는 다른 BRICs 국가와 달리 '99년 이후 평균 5% 내외의 지속적으로 높은 재정적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04년 말 기준, 브라질,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2.67%, 2.5%로 인도보다 낮고, 러시아는 4.5%의 재정흑자를 기록함.

< 인도정부 재정적자³⁾ (GDP 대비) >

(단위: US\$ 십억, %)

	'99/'00	'00/'01	'01/'02	'02/'03(p)	'03/'04(p)	'04/'05(f)
재정적자액(US\$)	24.1	25.5	29.3	30.3	27.1	N/A
재정적자비율	5.4	5.7	6.2	5.9	4.5	4.5

주1: p는 추정치, f는 예측치

주2: 인도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임

자료: EIU Country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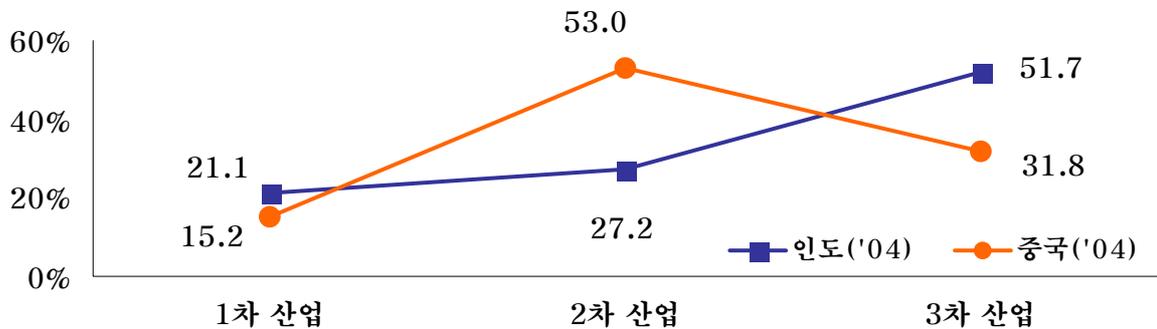
- 높은 재정적자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 구축(Crowd-out) 및 재정기반 약화 등을 초래하며, 정부의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대규모투자를 위축시킴.
- 또한 국가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를 야기해 투자 증가에 악영향을 미침.

3) 정부지출에서 정부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제외한 정부수입을 차감

□ 취약한 산업구조

- 2차 산업이 위주의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의 산업구조와 달리 인도는 3차 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형태임. 그러나 이는 인도 경제가 경제 발전 단계상의 산업경제 단계를 생략하고 지식경제로 이행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영세 서비스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인도와 중국의 산업구조 >



자료: Key Indicators 2005, ADB

- IT 산업 및 BPO⁴⁾, KPO⁵⁾와 같은 아웃소싱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인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준은 아니며, 동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2·3차 산업이 취약하여 실질적으로는 1차 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함.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제조업 진출 시 관련 산업의 취약으로 인한 원자재를 포함한 부대비용의 증가가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이에 대한 우려가 외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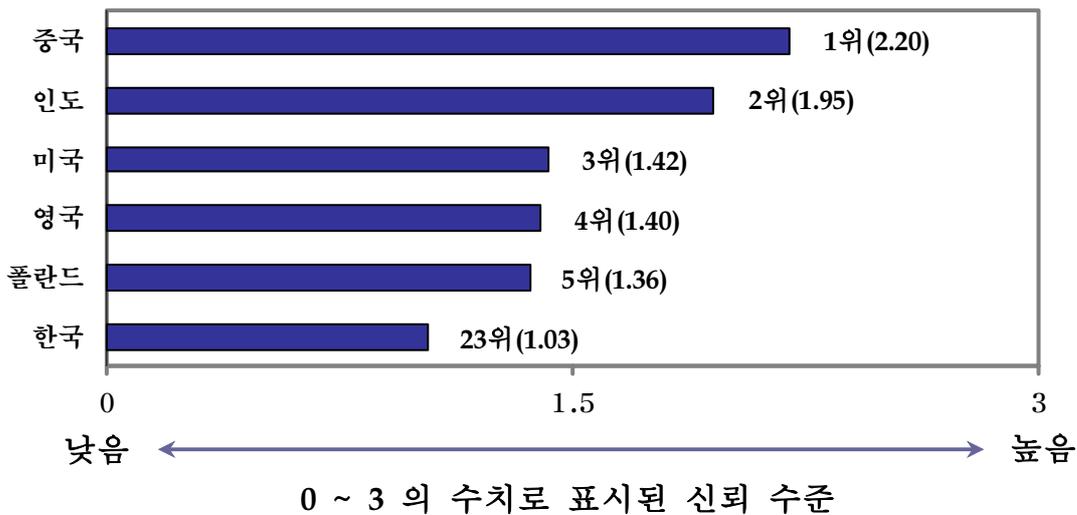
4)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일부 또는 업무 전반에 걸쳐 외부에 위탁 수행하는 것

5) Knowledge Process Outsourcing(KPO): BPO 중 지식 산업 부문에 걸친 영역만을 외부에 위탁 수행하는 것

III. 왜 인도인가?

□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인도 FDI 신뢰도를 높게 평가함

< FDI 신뢰지수 2005 >



자료: FDI Confidence Index 2005, A.T. Kearney, 2005. 12월

- 실질적으로 신규투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대인도 투자 신뢰도는 '03년 6위, '04년 3위, 올해 2위로 상승, 직접투자대상지로서의 매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설문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대비 인도의 투자 매력도를 높게 평가하는 부문은 영어구사가 가능한 고급 인력, 최고 경영층의 경영 능력, 법치 수준, 투명성, 문화적 장벽의 수준 등임.

□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아웃소싱 및 R&D 허브(Hub)화 가능성

-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듯이, 낮은 R&D 비용과 매년 3000명에 이르는 박사급 인력의 배출, 자유로운 영어구사 능력을 기반으로 인도는 세계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A.T. Kearney의 FDI 신뢰도지수에 따르면, 해외투자 기업들은 인도를 제약, 통신, 반도체, 과학기자재 등의 R&D 허브로 육성할 가장 매력적인 시장중의 하나로 평가함.

□ 꾸준한 경제 성장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

- 중국의 두자리수 성장률에 비할 경우 인도의 7% 성장률은 다소 낮은 편이나, 꾸준한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 현재는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낮아 저가제품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나,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구매력이 증가, 중·고가제품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 풍부한 노동력에 기반한 제 3국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

-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조업 육성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저임의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제 3국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됨.

-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저연령 인구층이 두터운 인도와 산아제한정책으로 동 연령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025~2030년경이면 비슷해질 것임.

< 중국, 인도의 경제활동 인구 추이 >

(단위: 천명)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중국	728,854	772,935	819,781	829,894	834,253	808,736	765,437
인도	494,008	552,039	612,804	671,767	723,980	769,206	807,923

주: 경제활동인구는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인구로 함

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

- 또한, 2005년 현재 인도의 도시 인구는 29%로, 40%인 중국에 비하여 농촌 부문에서 도시 부문으로 인구가 유입될 여지가 더 많아 중국 대비 노동집약적 제조업 성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China Risk**에 대비

- 최근 미국, EU 등지의 대중 무역제재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의 생산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를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인도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함.
-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른 의식 변화로 공산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가 정착된 인도는 체제 안정도가 높아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함.

IV. 인도 투자 진출 10계명

1. 인도는 제 2의 중국이 아니다

- 영토, 인구, 급속한 경제 성장 등 여러 면에서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 시장이나 정치, 문화 및 사고방식 등 다방면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인식, 진출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정치적으로 다원화되고, 서구식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임.
- 토착 기업에 대한 로열티가 매우 강하고, 품질보다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2. 시장 규모를 과대평가 하지 말라

- 글로벌 기업의 주요 인도 진출 실패요인은 시장규모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 기인함. '인도 인구의 20%만 중산층으로 봐도 2억의 거대시장' 식의 단순 논리는 맞지 않음.
- 인도 국가경제연구소(NCAER)는 인도에 약 3억 명의 중산층이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연간소득 US\$ 4,545~US\$ 23,000인 가정을 중산층으로 분류한 결과로 인도의 단순 통계에 의존해서는 안 됨.
- 우리 기준의 중산층은 5천만 명 정도로, 동 중산층이 한반도의 15배 되는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3.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을 숙지하라

- 부족한 전력상황, 취약한 도로·항만 여건 및 용수 부족 등의 열악한 환경을 충분히 숙지한 후 총체적인 투자 타당성을 검토해야만 함.
- 전력의 경우 하루에도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7~8시간 단전이 일상화 되어 자체발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일정하지 않은 전압으로 인해 자체적인 정격 전압으로 조정해야 하는 등 예기치 않은 비용 발생 가능
- 또한 원료 수입 및 제품 수출과 광활한 전국토를 포괄할 수 있는 판매 물류비용도 총체적으로 감안해야 함.

4.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가 유리하다

- 합작 투자 후 유연한 기업 운영, 이익의 배당과 과실 송금 등,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친 인도 파트너와의 갈등이 현지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도 실제 의사결정에 있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시기 지연이 빈번함.
- 불가피하게 합작 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투자 기업 측에서 되도록 많은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영향력을 확보하여야 함.

5. 유능한 현지인을 활용, 규제와 인(人)의 장벽을 넘어라

- 현지 마케팅, 對 관공서 업무 및 노동자 문제의 관리를 위해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최고 의사결정에는 참여시키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한 후 철저한 원칙에 의거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함.
- 지자체 말단 공무원부터 관련 정부부처에 걸친 무수한 절차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정통하고, 지역 사회에서 입지가 있는 현지 변호사, 컨설턴트, 회계사 등의 대리인 활용이 필요함.
 - 특히 현지진출기업의 영업에 가장 많은 지장을 주는 빈번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일시적·임의적인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회계사 등의 대리인 활용이 필수적임.

6. 성급해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 협상의 끊임없는 지연, 출장시 성대한 접대, 성약 단계에서 재협상 시작, 허점을 이용한 교묘한 받아치기 등과 같은 어려움이 많아 차분함과 인내가 필요
 - 처음부터 모든 가능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대화와 협상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타협을 하다가 보면 너무 많이 양보하는 실수를 범하기 쉬움.
- 이는 기업간의 협상 뿐 아니라 정부 절차 진행에서도 반복되는 것으로 최종 의사 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는 등 의사결정 상의 유연함이 요구됨.

7. 협의는 의사결정자와,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반드시 최고 책임자와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은 문서화해야 하고, 작게는 종업원에서 거래처에 이르기까지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사소한 사항부터 문서화해야 함.
- 최고책임자와 협의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와 정관 등 문서상의 책임자가 동일한 지 확인해야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인도인의 “No problem” 은 “당신의 말을 이해하였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확신에 찬 말을 합의된 사항으로 받아들였다가 낭패를 본 한국 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8. 법제도 변화에 촉각을 세워라

- 최근의 정권 교체 및 지속적 경제개혁 등으로 매년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사안이 수시로 변화하며, 투자정책 및 기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등 정책리스크가 큼.
-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련 법제도 및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함.

9. 지역별 · 거점별로 공략하라

- 광활한 국토, 높은 부동산 가격과 운송 인프라 미비, 현지 시장 친숙성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일거에 전국 유통망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에이전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4대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4대 상권별로 지배적 상인조직과 특성이 구분되므로 초기 단계에는 특정 지역이나 상권에 집중하고, 성과에 따라 에이전트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에이전트는 해당 부문에서의 평판과 입지, 사업 및 마케팅 능력, 해당 업종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야 함.

10. 거래선 ·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라

- 인도는 대그룹 계열사라고 하여 신용 있는 회사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며, 필요시 국제신용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거래선이나 잠재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파악해야 함.
- 필요하면 그룹회사라고 하다가도 불리한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그룹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 Dun & Bradstreet와 같은 국제신용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거나, 신용 조사가 어려운 경우 간접적으로 상대 파트너의 고객, 주변인물, 관련 조합 등을 통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함.

[참고 문헌]

- KOTRA · 삼성경제연구소(2005), 《BRICs의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 EIU(2005), Country Profile: India,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UNCTAD(2005),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United Nations
- Chetam Ahya and Mihir Sheth(2005), A New Roadmap for India's Roads?, Morgan Stanley Global Economic Forum
- A.T. Kearney(2004), FDI Confidence Index 2004, A.T. Kearney
- A.T. Kearney(2005), FDI Confidence Index 2005, A.T. Kearney
- Maria L. Lanzani(2005), India rising: A medium-term perspective India Special, Deutsche Bank Research
- Government of India(2005), SIA Newsletter,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각호
- Dominic Wilson · Roopa Purushothaman(2003),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oldman Sachs
- Roopa Purushothaman(2004), India: Realizing BRICs Potential, Goldman Sachs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기획조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 무공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작 성 자

- | | |
|----------|--------|
| ◆ 몸바이무역관 | 윤희춘 관장 |
| ◆ 뉴텔리무역관 | 장충식 과장 |
| ◆ 해외조사팀 | 이해인 대리 |